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과의 관계

로마서 2:12-16절

1 기도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정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찬양 해피투게더(생명 주께 있네) 141쪽

3 성경읽기

새번역성경

12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15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16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개정개역성경

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4 본문 설명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는 <본문 설명>을 읽은 후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죄를 범한 사람은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의롭게 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 명령한 일을 따르면 율법을 행한 것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이 적혀 있어서 여러가지 생각들이 고발과 변호를 주고받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면 이러한 사실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율법을 몰라서 한 일은 죄가 아니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이 없어도 우리 속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양심대로 살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것이라도 꿰뚫어 보십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감춰둔 죄가 있다면 즉각 주님께 고백하여 용서를 받으십시오.

5 삶의 나눔

-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
- 한 주간의 삶 중에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가족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6 함께하는 기도

-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 가족들끼리 한 주간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7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요약

One-Point 묵상

1 묵상구절 절

2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3 오늘의 삶

4 적용

5 기도